

1 본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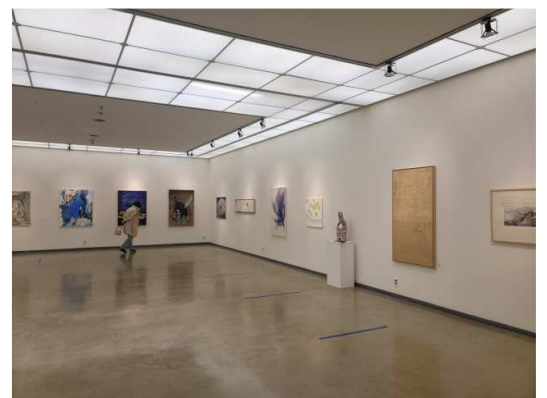


빌라다르 2021 개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회장 권영걸·69응미)는 본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과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빌라다르 2021'을 개최했다. 본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개막행사를 생략하고 개막에 앞서 소수의 미술평론가, 갤러리스트, 언론, 컬렉터만 초청해 프리뷰를 진행했다. 2018년 '빌라다르페스티벌 2018'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이번 '빌라다르 2021'은 광복이후 한국미술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49학번 원로세대 90대부터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17학번 젊은세대 20대까지 200여 동문작가들이 참여했으며

300점에 이르는 작품이 전시됐다. 한국화단 70년 역사와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구성의 전시로써, 치열한 예술 정신으로 모교를 빛내온 선배들과 한국화단의 주역이 될 후배들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시민들에게 작품 소장 기회 제공하고자 소품전도 진행되었는데, 특히 서울대동문에게 공식적으로 할인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일반 전시와 달리 구입의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부대행사로 나성숙(71응미) 옷칠공방 등 동문사업체 홍보 및 오색빛닭(대표 강유진·11서양·동양) 등 아트상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에스아트플랫폼을 통해 사회공헌사업과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빌라다르2021 : 우리는 하던 전시를 계속합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올해로 설립 75주년을 맞으며 배출한 동문이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미술교육의 금자탑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 되고 있던 2020년, 서울대미대동창회는 온라인전시인 Art-On-The-Line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전시는 그 후 아카이브로 전환되어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950년 첫 졸업 선배님들부터 2020년 최근 졸업한 동문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큰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100여명이 동문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며, 누적 방문자가 5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해리 골든(Harry Golden)의 경구를 다시 떠올립니다. The Show Must Go On!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합니다.

이번에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제2회 빌라다르(Villa d'Art) 2021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엄중하지만, 우리는 하던 전시를 계속

합니다. 200여명의 동문이 한자리에 모여 원로 선배님들을 모시고 후배들을 후원하는 취지로 전시회가 기획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일을 추진하며 많은 걱정을 했는데, 동문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단숨에 전시장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선배님과 후배님들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시회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동문들의 화합과 소통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삶이 위축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이 팽배해지는 시기일수록 예술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안식을 줍니다. 빌라다르 전시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문들의 창작 열기와 열정 속에 흐르는 따뜻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흔쾌히 참여해주신 동문 여러분과, 전시회를 위해 수고하신 상임부회장님들, 사무국장님, 간사님, 연구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장

권영걸

서울대 미대 동문회전 '빌라다르'

49학번부터 70년 관통 200여 작가

진영선, BTS 지민 모티브로 신작

20세기의 49학번부터 21세기의 19학번까지 70년을 관통한 미대 선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설립 75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가 에스아트플랫폼과 공동 주최해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한 '빌라다르(Villa D'art) 2021' 전시를 통해서다. 거장이 된 원로화가부터 신진까지 200여 명의 작가들이 출품했다. 이번 전시의 최고령 최고 학번 선배인 전영화 화백은 1949년에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고 평생 재료와 기법에 대한 실험을 지속해 자신만의 수묵추상에 이르렀다. 번짐과 스미는 기묘한 푸른 색조의 출품작 '오방과 다문화'에서는 빛이 뿜어나는 듯하다. 전화백은 동국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공을 들였고, 지난 2017년에는 이동훈미술상을 수상하는 등 화단에 묵직한 발자국을 찍었다.



64학번인 진영선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이 지난 2019년 멜론뮤직어워드(2019 MMA) 생방송 무대에서 선보인 '아이 니드 유(I NEED YOU)' 달의 신 아르테미스 독무를 모티브로 한 프레스코 병풍 신작을 출품해 눈길을 끌었다. 접혔다 펼 수 있는 4폭 병풍 회화로 제작된 신작에는

대형 천을 쥐고 독무를 펼치는 주인공 지민과 함께 김숙자·이애주 등의 무용가가 등장한다. 이채로운 것은 그림 좌우에 삽입된 QR코드인데, 이들은 진 교수가 작품 제작과정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과 이에 대한 이탈

리아 아미(ARMY·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의 트윗 등으로 연결된다. 진 명예교수는 서울대 졸업 직후 유학길에 올라 국내 프레스코화 1세대 작가가 됐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며 지난 2000년 새해 첫 날에는 밀레니엄의 시작을 알리며 임진각에서 열린 'DMZ퍼포먼스'에 백남준과 협업해 참가하는 등 시대 변화를 앞서 가는 작가로 명성을 쌓았다. 문화연구자로서 지난 2019년 국제 세미나 형식으로 열린 'BTS인사이트 포럼'에 연사로 참가했던 진 교수는 "BTS의 앨범이나 공연, 뮤직비디오를 보면 백남준의 예술이 떠오를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면서 "BTS는 백남준의 '예술적 예언'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참가하는 등 일찍이 국제적으로 활약한 유인수 상명대 명예교수도 신작 '파괴된 우상21'을 내놓아 눈치 않는 열정을 과시했다. '독도' 연작으로 유명한 김병중 화백의 아이콘인 붉은 색 생명의 꽃이 돋보이는 '화홍산수', 이맘때 가을의 풍요로움을 생각하게 하는 한운성의 '다섯 개의 감' 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운성의 과일 연작은 극사실 화법 속에 정물을 넘어서선 통찰을 담고 있다. 이주원의 작품 '길에서 조우하다-어떤 방랑자'는 동양화를 전공한 후 지속적으로 매체를 연구해 온 작가의 최근작이다. 한지에 아크릴과 LED를 사용한 인물화를 통해 현대인의 정체성 고민을 드러냈다.

전시장에서 만난 권영걸 서울대 미술대학 동창회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올해로 설립 75주년을 맞으며 배출한 동문만 6,500명을 넘겼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던 지난해에 기획한 온라인전시는 동문 소통의 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고, 여전한 위협과 불안이 시기에 예술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안식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전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별도 행사 없이 개막했고 17일 막을 내린다.

글·사진=조상인 기자/ 2021.09.17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I0TXIXF>

온라인 해외동문작가초대전 개최

본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시는 동문작가들의 빛나는 활약을 한국에 소개하고 자료화 하고자, 그 첫 번째로 북미동문작가들의 작품전을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모교 졸업 후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해온 성수환(59조소), 오계숙(59응미), 신덕재(60조소), 장연탁(60조소), 한석란(71조소) 등 동문 30여명의 작품 약 100점 및 약력이 소개된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해외동문작가초대전에 동문



들은 반색했으며, 특히 남가주 서울대미대동창회 한석란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시가 이뤄지는데 큰 도움을 줌과 더불어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동창회비를 모아 납부했다. 온라인 전시는 본회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NewerArT

새 시대 아트 스튜디오

대표이사 유영쾌

Cell : 010-5229-4583

Tel : 031-902-1597

Fax : 031-901-1597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한신메트로폴리스 2층 207호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05번길 96-6 가동

E.Mail : ssd88s@naver.com

Homepage : www.newerart.com

인스타그램 : @newerart_studio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 Hidden Exhibition in Seoul

누락된 의제 - 오디세이,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일시 : 2021년 9월10일 - 11월2일 10:00-18:00 (입장마감 17:30)

장소 :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실1-4

전시부문: 사진, 영상 100여 점

참여작가: 구성수, 김규식, 마사 로슬러, 멜라니 풀런, 백승우, 브루노 조르잘, 안 밍가드, 어윈 올라프, 원성원, 임안나, 조지 오소디, 정주하, 파브리스 몬테이로, 피파 바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는 이 시대와 국제사회가 ‘정상’으로 규정해온 것들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향을 촉구하는 징후적 사건입니다. 2020년, 바이러스가 현 문명의 시스템에 잠정적 중단을 종용했을 때, 비로소 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누락했거나 간과했던 의제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되풀이되는 전쟁과 테러, 국경 사이에 갇힌 난민, 되살아나는 인종차별, 제국의 망령,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약탈당한 생태계..., 탄식과 절규가 누락되어선 안되었을 《누락된 의제 - 37.5 아래》(Missing Agenda)를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주제로 삼도록 했습니다.

《누락된 의제 - 오디세이,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전은 제8회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연장이자 그 뿌리에서 비롯된 독립된 분신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현 세계를 대하는 상황인식과 현대사진에 대한 문제의식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제8회 대구비엔날레 주제전 《누락된 의제 - 37.5 아래》전과 서울대학교미술관의 《누락된 의제 - 오디세이,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전은 이를테면 ‘일란성 쌍생아(identical twins)’와도 같은 셈인데, 이는 장소의 배증이자 분할로서 특별히 두 측면에서 현재의 코비드 상황에 대한 큐레이터십의 응답이자 전략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물리적 이동이 제한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소통망의 확보와 확장, 둘째는 전시 콘텐츠의 공유를 통한 엔트로피 증가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전시를 구성하는 14명의 작가 가운데 8명은 대구사진비엔날레 주제전과 동일합니다. 반면, 6명의 작가는 서울대학교미술관의 독립적인 큐레이팅의 결과입니다. 두 전시 모두를 볼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부득이 대구문화예술회관이나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 둘 중 하나의 감상만 가능하더라도, ‘누락된 의제’라는 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전시의 공학적 상응성 만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두 전시의 신경망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핵심개념(key concepts)이 있습니다. ‘여정(Journey)’과 호머의 시에 나오는 ‘오디세이의 귀향(Odyssey’s Homecoming)’이 그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의 한 가운데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단테(Alighieri Dante)의 고백이 팬데믹 사태를 맞고 있는 현 문명의 현상학적 바닥을 짚는데 있어 시금석이 되리라는 인식이 두 전시의 서사적 흐름과 동선을 이끄는 개념적 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작금의 팬데믹 상황은 이 문명이 세이렌 자매가 사는 바위 옆을 지나거나 분노한 포세이돈의 풍랑에 잠시 표류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그런 비유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이라면, 이 비틀거리는 문명의 궁극, 이를테면 오디세우스의 이타카섬은 어디일까요? 인생만큼이나 문명의 부침도 그 시작과 끝 사이의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여정입니다만,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현대사진에 관하여서는 세계와 그 앞에서의 역사와 상황인식으로 담금질된, 변증적인 성찰적 사유에서 비롯되는 사진 미학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의 누락이나 은폐, 조작을 정당화하거나 가담하는, 미학적 치장이나 치장으로서의 미학은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의지에 의해 조율되는 사진 행위, 지하 갭도의 카나리아 같이 불의와 폭력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의식의 결과물로서의 사진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특권화하거나 하는 범주개념에 사로잡히고 싶은 욕망을 충분히 경계할 줄 아는 지식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누락된 의제 - 오디세이,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전이 그러한 의미로 잘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상용 서울대학교미술관장

서울대미술관 MOA 2021년 2기 현대예술문화강좌

서울대미술관은 성인 130명(관악구100, 타구30)을 대상으로 2021년 2기 현대예술문화강좌(아시아미술사 주제)를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한다.

- 9.02 근현대아시아의 역사와 예술-근대와 전통사이에서-박소현(독립연구자)
- 9.09 신중국성립과 문화대혁명기의 시각문화-유정아(미술사학자)
- 9.16 개혁개방과 중국 현대미술의 변화-이보연(성신여대 교수)
- 09.23 21세기 중국 동시대 미술의 역동성-권은영(아시아문화원 큐레이터)

- 09.30 전후일본미술: 구타이, 모노하-김정복(한국예종 겸임교수, 미술평론가)
- 10.07 서브컬처와 일본현대미술-김일림(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10.14 태국, 싱가포르의 현대미술-김주원(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10.21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현대미술-하계훈(단국대학교 교수)
- 10.28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현대미술-홍경한(미술평론가)
- 11.04 인도현대미술을 주목해야하는 이유-윤재갑(중국HOW아트뮤지엄관장)
- 11.11 아시아의 현대미술시장-김성혜(ART602 대표)
- 11.18 글로벌리즘과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정훈(계명대 교수)

제 16기

서강대 경제대학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미래경영자를 위한
글로벌(Global), (Ethics), & (Humanity)

Genh.kr
서강대학교 글로벌 EnH 최고위 과정
02)705-7914 / genhsogang@hanmail.net
041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계페르트 남덕우경제관 글로벌 EnH최고위과정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글로벌 미래, 윤리경영·인문학(G-EnH) 최고위과정에 초청합니다.
본 과정은 기업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과 준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한국감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든 시대, 대격변의 글로벌 환경에서 리더는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글로벌 경제와 준법 경영, 인문학과 건강을 융합한 G-EnH 최고위과정은 서강대학파로 명성 높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과, 경영, 인문, 철학, 역사, 과학, 건강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강사로 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본 과정은 최고 감사인으로서 요구되는 건전한 거버넌스 등의 필요 요소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한 윤리준법에 대한 가치관을 배양하는 글로벌 윤리경영의 최고 심화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동참하시어 그동안 배출된 1,000여 명의 저명하고 훌륭한 원우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ECA(Ethics Compliance Auditor)’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감사협회 회원인 경우 ‘윤리준법 감사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환영합니다.

서울대 소식



후기 학위수여식

제75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27일 오전 10시 서울대 대표홈페이지(www.snu.ac.kr)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20명, 석사 1,010명, 박사 701명 총 2,731명에게 각각 학위를 수여했다. 지난해 8월 첫 실시후 세번째인 온라인 학위수여식에서는 재학생, 교수, 직원 등의 릴레이 응원인사에 이어 본 영상으로 총장 학위수

여식사와 축하, 졸업생 대표인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축하 연사로 초빙되어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온라인 학위수여식에서 학생 참여에 중점을 두고, 졸업생들이 참여하는 추억사진 공모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순서에서 상영됐다. 오세정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어렵고 생소한 상황에서도 진지하게 학업에 정진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진리와 정의, 그리고 공정과 형평을 추구하는 노력을 쉽 없이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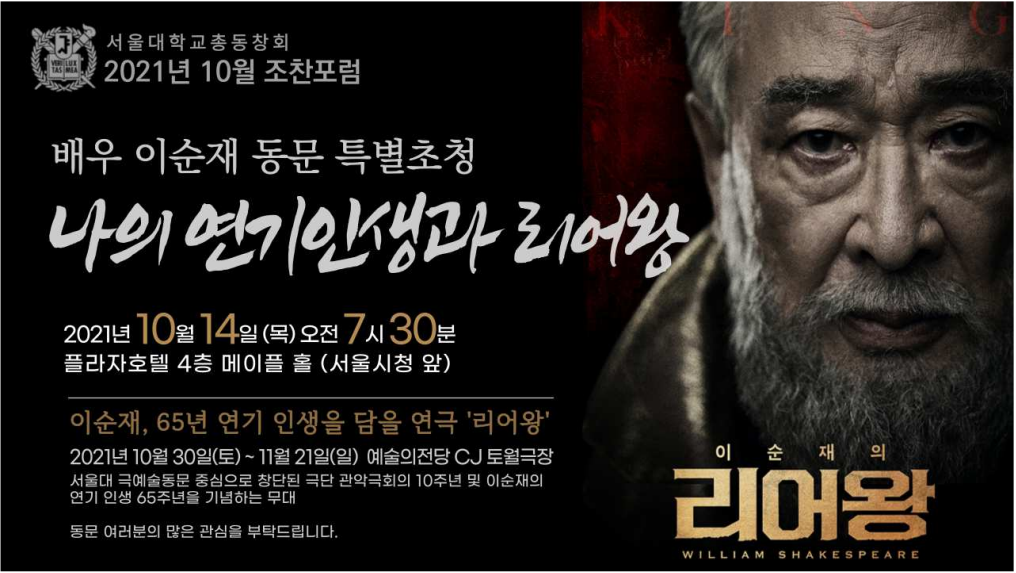
정문광장 조성



서울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이지만, 관악캠퍼스의 정문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정문 좌측으로 차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오는 10월 중순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본관 잔디광장도 대대적인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늦가을이면 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더욱 쾌적한 잔디광장을 만나 볼 수 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10월 조찬포럼



일시 : 10월14일(목) 오전7시30분
장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서울시청 앞)
강연자 : 이순재 배우 · 가천대 석좌교수
주제 : 나의 연기 인생과 리어왕
참가인원 : 40명 이내
참가비 : 5만원 / 1년간 50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홈커밍데이행사 온라인개최

일시 : 10월15일(금) 오전1시
방송채널 :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www.youtubr.com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검색)
행사내용 : 모교 및 총동창회 현황 보고, 동문 축하 메시지, 축하공연 등

동문바둑대회

일시 : 11월14일(일) 09:30-17:00
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71동)
참가인원 : 300명 (동문, 재학생, 교직원)
참가비 : 없음

진행방법

- 가. 단체전 : 단과대학, 지부별 5명(후보 1명 추가 가능)
 - 나. 개인전 :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 등 편성
 - *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대국방법은 변형스위스 리그로 진행
- 신청 방법 : 10월29일(금)까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팩스번호 02-703-0755)
* 신청서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동문골프대회

일시 : 11월28일(일) 오전11시45분 티오프
장소 : 남춘천CC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산 226번지, 033-269-3000)
진행방법
가. 친선팀 : 개인별 출전
나. 대표팀 : 단체 - 4인 1팀 구성, 단과대학 및 지부별 2팀 출전 가능
개인 - 개인별 출전(단체전 출전선수는 모두 개인전도 신청됨)
참가인원 : 104명(26팀) * 선착순 접수 마감
참가비 : 30만원(그린피 · 카트료 · 캐디피 · 오찬 · 만찬 · 그늘집 등 포함)
신청방법 : 11월17일(수)까지 성함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보낸 후 참가비 입금.
· 문자수신번호 1877-2039, 이메일 jang9869@hanmail.net
* 참가비는 골프장 데스크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
* 11월 18일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 불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까지(문의 : 02-702-2233)
 - ☐ 참가신청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 문자 1877-2039(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 이메일 member@snu.ac.kr로 접수
 - ☐ 참 가 비 : 신한은행 140-013-055887(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과 입학연도 표기
 - ☐ 문 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전화 02-702-2233
- * 총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2021년도 동창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정성껏 내주신 회비와 찬조금은 동창회와 동문들을 위해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연회비납부자
2021년 7월20일 이후 회비를 납부하신 분의 내역은 다음 10월호에 일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동창회 SNS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밴드 가입시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올려 알리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 김홍도(98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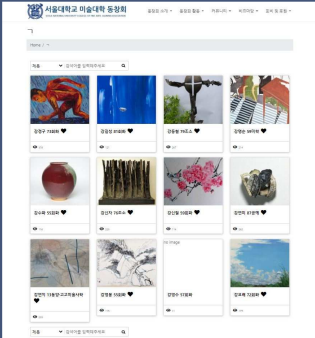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자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신청전화: 02-872-8065)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휴대폰에 메일 어플리케이션(네이버메일, 다음메일 등)을 설치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하여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 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립니다
본회 홈페이지(snuart.or.kr) 아카이브에는 현재 700명의 작품 및 약력이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횟수는 1일 최대 780회, 1일 평균 100여회를 기록, 지금까지 총 5만5천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재대상도 기존의 시각예술 작품 외에 영화, 공연, 저서 등 창작물은 물론, 운영사업체나 프로젝트 등 실적물까지 확대해 전 동문의 아카이브를 제작중입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아카이브에 게재해드리고 기존 업로드 되어있는 회원님들은 요청시 수정, 보완해드립니다.
게재신청
메일주소: snuarta@naver.com
자료: 이름(학번/과), 약력, 창작물이나 사업관련 이미지(3장)와 캡션
게재대상: 금년도 회비납부회원(납부안내는 본 페이지 왼쪽상단)
문의 : 02-872-8065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 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 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권영걸(69응미)



본회 권영걸 회장이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에 내정됐다. 서울디자인재단은 공공사업을 포함, 도시디자인사업을 총괄하고 중장기 도시디자인정책을 연구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올해 예산은 500억원에 육박한다. 권회장은 10여년 전 오세훈 1기 서울시에서 초대 디자인재단 이사장을 지내며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지휘했으며, 이번 내정으로 10년 만에 이사장 자리에 복귀하게 된다. 2007년에는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부시장급)을 맡았고, 2009년부터 3년간 디자인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동안 서울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고척스카이

돔 추진, 한강 접근성 개선과 생태 정비, 문화관광시설 조성 등을 골자로 한 '한강 르네상스'를 주도하는 등 200여 프로젝트 디자인을 총괄했다.

권회장을 재기용하는데는 서울 도시디자인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9월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회장은 서울시 임시추천위원회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최근 통과했고 오시장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로 조만간 공식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지난 9월15일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70여개 지천과 하천, 실개천 등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 생활공간을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회장은 이번 임기 동안 서울시의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회장은 모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대 대학원에서 디자인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계획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모교 교수 및 학장,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주)한샘 사장 겸 최고 디자인경영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디자인교육의 산증인 박대순(49응미/1929-2021)



박대순 동문이 지난 9월12일 작고했다. 한국의 디자인 교육 역사를 돌아볼 때 박동문은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교사로서 디자인교육에 첫 발을 내딛은 뒤 한양대 교수로 정년을 마치기까지 박동문은 한국 디자인의 교육체계와 방법론을 정립하고 디자인 후학을 양성해 오늘날 한국 디자인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1950년대 응용미술교육을 받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60년대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한 교육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또 1970년대에는 산재된 디자인 역량을 결집해 디자인의 저변확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하였으며, 동시에 학회를 설립해 디자인의 학술적 체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대학에 디자인 박사과정을 개설하며 현업을 넘어 학문, 연구로서의 디자인 실천을 교육 제도에 안착시켰다.

한국에서 디자인 교육은 대학에서의 응용미술교육과 고교에서의 실무적 미술교육이라는 두 축에서 이루어졌다. 박동문은 경기공업고등학교의 공예과 교사로서 장식용 공예소품에서 가구공예품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에 실용적, 미적 디자인의 접목을 도모하였고, 더 나아가 기계, 건축, 토목 등 타 분야 학과에도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963년 경기공업고등학교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산업기술 인재의 조기배출을 목적으로 고교 과정과 대학 과정을 하나로 잇는 5년제 국립학교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현 서울과학기술대학)로 개편됨에 따라 박동문은 자신이 꿈꾸던 디자인 교육을 실천할 기회를 맞게 된다. 디자인 교육에 필요한 설비나 제반 환경들은 이미 수년에 걸친 그의 노력으로 충분히 갖춰져 있었고, 5년이라는 긴 교육기간은 그의 교육 이념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충분했다. 학과 명칭은 그대로 공예과였지만 전공을 상업의장, 공업의장, 공예의장의

세 개 분야로 개편하며 전형적인 산업디자인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는 미술계 대학들이 주도해 오던 응용미술로서의 디자인 교육에 산업·경제적 가치창출을 더한 산업디자인 교육으로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향후 한국 디자인 교육 방향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박동문은 "디자인은 작품(디자인)을 통해 말하고 디자인의 문제해결능력은 많은 작품 경험으로 얻어진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기초 과정은 조형 훈련과 실습, 중급 과정은 디자인 스킬 강화에 주안을 두었고, 고급 과정에서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분야별 디자인 감각을 다듬고 사고를 확장하여 전문디자이너로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졸업 요건으로 상공미전 출품 의무화, 산업체 현장실습, 졸업논문을 두었다. 1968년 박동문은 한양대 응용미술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디자인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나 응용미술과가 디자이너 양성보다 중등미술교사 양성의 목적이 컸기에, 충분한 교과 개설은 물론 전문 교수 인력도 부족했다. 이에 박동문은 5년제 전문학교 출신 학생들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합류시키는 파격적인 융합을 택했고, 그 결과 디자인 중심의 교과 운영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으며 또한 교수에게 의존하는 도제적 교육에서 탈피한 진취적 디자인 교육 풍토가 조성됐다.

1972년 박동문은 한국 디자인 역량의 결집을 위해 전국의 학계, 산업계를 총망라하는 한국디자이너협회(KDC)를 결성하였다. 1978년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 체계를 정립하고 디자인 이론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디자인학회를 설립하였다. 1985년에는 한양대에 디자인 박사과정을 도입하였다. 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학술적 체계화를 위한 시도였으며, 단순 연구를 넘어 하나의 학문으로서 디자인 연구를 정립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리고 1988년 그 자신이 '산업디자인개발을 위한 기초론적 연구'로 한국 최초로 디자인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3년 정년을 맞이까지 박동문은 디자인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였다. 정년퇴임으로 공식적인 그의 활동은 마감되었지만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오늘날 한국디자인학회의 성장과 디자인의 학문적 지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유니세프 아너스클럽 회원 김병중(74회화)



품기증 사례는 있었지만 실제 작품이 경매되어 기부까지 이어진 사례도 최초

김병중 동문이 유니세프(UNICEF)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5월 창립된 유니세프 '아너스클럽'은 고액 기부자들의 명예로운 모임으로 주요 회원으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배우 안성기, 원빈, 가수 방탄소년단(BTS) 진, 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등이 있다. 유니세프는 "NFT 작품을 통해 기부된 것은 최초이며, 일반적인 작

라고 전했다. 지난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NFT 통합서비스 플랫폼 엔버월드(NvирWorld) 공식사이트에서 김동문의 NFT 작품 경매가 진행됐다. 시작가 0.3 이더리움(ETH·약 110만원)이었던 입찰가는 시간이 갈수록 치솟아 최종 26.01 이더리움(ETH·약 1억327만원)에 낙찰됐다. 수익금 전액은 최근 테러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와 아이티 어린이의 긴급 구호를 위해 유니세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에 NFT로 만들어진 김동문의 작품은 '서설(瑞雪)'의 서울대 정문'으로 지난 2014년 사진평 중국 국가주석 방한 때 오연천 당시 서울대 총장이 선물해 화제를 모았다. 김동문은 "새로운 흐름인 NFT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어 응낙했다"고 전했다. 2014 대한민국 문화훈장, 2018년 대한민국 근정훈장을 수훈한 김동문의 작품은 현재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중국, 베트남 대사관 등에 소장 돼 있다.

동학농민혁명동상 작가선정 임영선(79조소)



정읍시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동상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작가공모’에 임영선 동문이 선정됐다. 정읍시는 지난 6월14일부터 8월27일까지 전국 공모를 진행해 1·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16점의 작품 가운데 임동문의 작품 ‘불멸, 바람길’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불멸, 바람길’은 고부에서 봉기를 시작으로 한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와 투조, 환조의 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군상조각이다. 전체적인 작품배치는 사람인(人)의 형상이며, 이는 동학의 인본주의 사



상이 작품 전체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렬의 선두에 선 전봉준 장군의 크기와 위치를 민초들과 수평적으로 배치해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덕천면 황토현전적지 내 재건립하는 동상은 내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5월11일)’에 맞춰 제막한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천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문을 말해 봐 최숙희(84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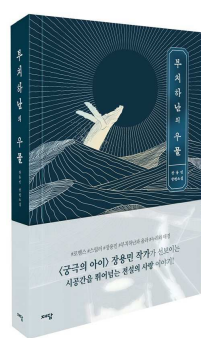
최숙희 동문의 신간 ‘주문을 말해 봐’가 출간되었다. ‘주문을 말해 봐’는 실존하는 반려동물과 최동문의 이야기가 스민 그림책이다. 매일 같이 아침을 맞이해 온 고양이 ‘후추’의 모습은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지만, 최동문은 신간을 준비하는 동안 한층 치밀하게 관찰하고 교감해 자유롭고 생동감 있

는 후추의 몸짓과 눈빛을 담았다. 최동문은 ‘나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내 속에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나랑 친구 할래?』, 『행복한 그랜드』, 『엄마의 말』, 『너는 어떤 씨앗이니?』, 『곤지곤지 찹찹』 등 수줍고 소심한 아이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림책,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들 마음에 공감하는 그림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여러 그림책이 해외에 판권 수출되었으며, 볼로냐 아동 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스웨덴 국제 도서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처하난의 우물 출판 장용민(89공예)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독자에게 친숙한 장용민 동문이 신작 ‘부처하난의 우물’(재담미디어 출판)을 선보인다. 장동문은 모교 졸업 후 국영화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했던 ‘건축무한육면각체의 비밀’(1999)이 대상을 수상하며 스크린으로 옮겨진 바 있



다. 이때 썼던 시나리오를 동명의 소설로 옮기면서 소설가로서의 이력이 시작됐다. 이후 <운명계산시계>, <신의 달력>, <궁극의 아이>, <불로의 인형>, <귀신나방>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 전문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3년 출간된 <궁극의 아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토리공모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드라마 흥천기 방영 장태유(92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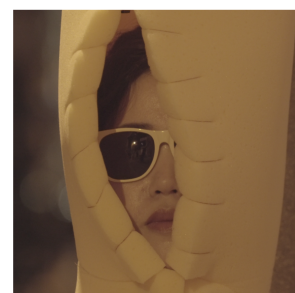


SBS 드라마국 PD 장태유 동문이 연출을 맡은 월화드라마 ‘흥천기’가 지난 8월30일 첫 방송됐다. 장동문은 ‘별에서 온 그대’, ‘뿌리깊은 나무’, ‘바람의 화원’ 등 명품 사극 연출로 그간 호평을 받아왔다. 이러한 장동문이 약 10년 만에 사극 연출을 맡은 ‘흥천기’는 신령한 힘을 가진 천재 여화공을 소재로 한 판타지 로맨스 사극 드라마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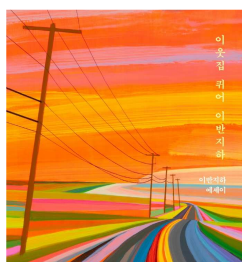
당력이 가미된 판타지 연출과 동양화 그림들로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를 품은 달’, ‘성균관 스캔들’ 등 드라마화로 성공이 입증된 정은결의 동명 소설을 드라마화했다. 최근 열린 ‘흥천기’ 제작발표회에서 장동문은 “‘바람의 화원’ 때 표현하지 못한 그림에 대한 아쉬움을 원 없이 표현하고 싶었다”며 “전문 화가를 섭외하고 작가와 함께 그림 한 장 한 장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예고했다.

이웃집 쿼어 이반지하 김소윤(01조소)



쿼어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소윤(이반지하) 동문의 신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이반지하의 글과 그림작품이 담긴 첫번째 책이다. 김동문은 2004년 활동을 시작한 쿼어 퍼포먼스 아티스트로서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쿼어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농담들을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다. 괴상한 이름과 무대의상은 영락없이 B급 인디 감성으로 뚝뚝 뭉친 인물 같지만 사실 모교 서양

화과를 졸업한 현대미술가이자 국내외 영화제에 작품을 상영하고 초청받은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동시에 충격적인 가사로 쿼어들의 전설로 손꼽히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다. 지난 3월에는 한국 최초 쿼어가족 시트콤의 각본을 쓰기도 했다. 2019년 연말엔 이반지하 ‘최초마지막단독인권콘서트’를 열었고, 작년부터 ‘셀럽 댕’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월간 이반지하를 함께하고 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인 리더셀렉트에서 매주 ‘이반지하의 오늘은 투데이’라는 에세이를, 네이버에션 웹소설 ‘다시 한번 플라워’를 연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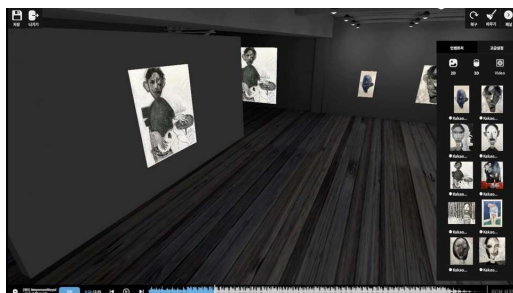


스타트업 회사 ‘뭉’ 김휘재(12동양)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3차원(3D) 전시장 ‘뭉’(대표 김휘재 동문)은 작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시 홍보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이 겪는 비용적인 고충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문제 해결을 돕는다. 뭉을 통해 창작자는 본인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작품을 걸고 음악도 틀고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2차원(2D) 작품부터 조각, 사물 등의 3D작품도 설치 가능하다. 현재 뭉에는 김동문 외에

5인이 융합예술팀, 소프트웨어(S/W) 개발팀으로 함께하고 있다. 김동문은 우선 창작자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서비스를 구축한 뒤 서비스가 안정되고 수익도 많이 생기면 예술가 지원사업, 온-오프(On-Off) 연계전시 등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술계 메타버스의 선구적인 사용자 환경·경험(UX·UI)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고 미술작가들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고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술관설립 개관전 이기주(60조소)



이기주 동문의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바다와 맞닿은 기장군에 자리한 공간으로, 8월31일-10월3일까지 이동문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는 개관전 '테라코타'가 열리고 있다. 이동문은 부산에서 오브제 양식의 도예작업을 선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8년 만들어진 부산 최초 입체작업 동인 '공간'의 결성 멤버로 경성대 공예과 교수와 예술대학 학장, 산업대학원 원장을 거쳐 예술종합대학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1992년에는 국제행사 한일도예대학을 만들고 2016년까지 실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1994년에는 국제신문이 지역 최초로 시도했던 국제도예 공모전 '국제도예전'의 운영위원장(1994~2000)을 맡아 오랜 기간 행사를 이끌었다. 이번에 조성한 이기주미술관은 이처럼 예술가 겸 교육자로 부산 문화에

술 활성화를 위해 애썼던 이동문을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지하1층·지상2층의 310㎡(94평) 규모로, 이동문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살았던 집을 활용해 만들었다. 지하1층은 이동문의 작업실이고, 지상1·2층을 전시실로 꾸몄다. 향후 1층은 이동문의 작품을 상시로 선보이고, 2층은 신진 도예작가들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관전으로 마련한 '테라코타'에서는 이동문이 교수 퇴임 이후인 2005-2020년 사이에 작업한 테라코타, 회화 100여점을 모아 소개한다. 개인전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신작들로, 작품 수가 많아 이기주미술관과 산목미술관(해운대구)에서 나눠 전시한다. 이기주미술관 관상인 관장은 "해외에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작가 개개인의 미술관이 많다"며 "이기주 작가와 작품을 오래 기억하면서도, 예술가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미술관을 조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드로잉, 사잇 임충섭 (60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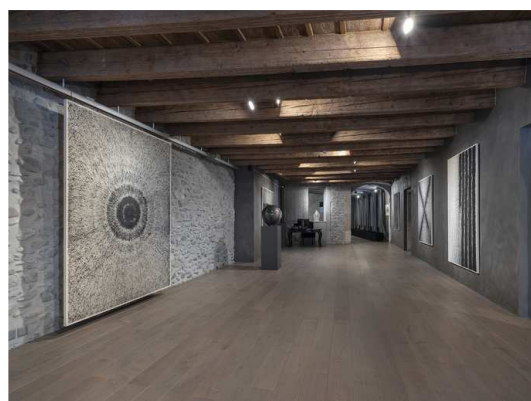


임충섭 동문이 지난 8월 10-27일 갤러리현대 두가현에서 개인전 '드로잉, 사잇'을 열었다. 제목 '사잇'은 '사이'를 잇는다는 뜻으로, 동양(한국)과 서양(미국), 자연(시골)과 문명(도시), 과거와 현재, 여백과 채움, 평면과 입체, 추상과 구상 등의 '사이'를 탐색해 온 작품 세계를 반영해 신작 드로잉 20여점을 선보였다. 1941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난 임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1973년 뉴욕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발



표한 드로잉 작품들은 서양미술 형식에 동양 서예의 언어적 이미지를 결합한 것들이다. "한문의 반추상적 형성이 서양미술의 추상 표현에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임동문의 작품들은 다양한 소재를 한 장소에 놓고 병치하거나 중첩하면서 재료 사이를 잇는다. 유화, 크릴릭, 연필, 캔버스처럼 전통 회화 재료부터 먹, 한지 같은 동양적 재료가 함께 쓰인다. 페이퍼타월(휴지), 플라스틱 망, 카펫, 나무못, 린시드오일, 왁스까지 있다. 모든 재료는 캔버스에 투명하게 침잠하듯 스며들어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질감과 입체감이 돋보이는 부조 화면을 구축한다.

해외 회고전 최상철(65회화)



최상철 동문의 첫 해외 개인 회고전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AV 모던&컨템포러리에서 2020년 9월 25일부터 개최되어 지난 9월10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 말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아울러 최동문의 작품 세계를 깊게 담아냈다. 지난 40년간의 작가의 예술적 실험과 미니멀 추상에 대한 연구를 반영한 무물(無物) 시리즈를 포함한 30여점의 작품을 소개했다. 소피아 코마로바(AV 모던&컨템포러리갤러리 대표)는 명상과 고독,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최동문의 작업 방식이 코로나 상황 속에

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에 일으키는 반향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 회고전을 담은 100여 쪽에 달하는 영문 작품도록도 함께 출판됐다. 전 프랑스 국립고등미술학교(에콜 데 보자르) 학장이자 '모든 지식의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한 이브 미쇼(Yves Michaud)가 도록의 서문을 맡았고, 한국의 심상용, 박용택 미술 비평가의 글도 담았다. 이 도록은 다수의 아트북 독립서점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구입 가능하다. 이번 전시에 이어 2022년 10주년을 맞이하는 스위스 아트 제네바(ARTGENEVE: Le salon d'art)와 벨기에의 2022 아트 브뤼셀(Art Brussels)에도 최동문의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다. 한편 최동문은 1969년 모교를 졸업하고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이래로 40여년간 꾸준히 한국 현대미술사와 함께 작업을 발전시켜왔다. 붓을 사용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하는 다양한 실험을 거쳐 최근에는 조약돌에 물감을 묻혀 흔적을 남기는 방식의 무물(無物)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작품은 한가람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자선전시회 김영주(66회화)



대한기독교여성절제회(회장 김영주)가 태아알코올증후군 예방에 나섰다. 절제회는 지난8일까지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태아알코올증후군예방연구소(소장 김영주)를 후원하는 자선 전시회를 열었다. 태아알코올증후군은 임신 중 여성이 마시는 술이 태아의 장기를 손상해 일어나는 병으로 소뇌증, 안면기형, 중추신경 장애, 과잉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영주 동문의 작품 30여점이 걸렸다. 김동문은 1970년 모교를 졸업하고 73년 미국 크랜브룩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한 차례도 자신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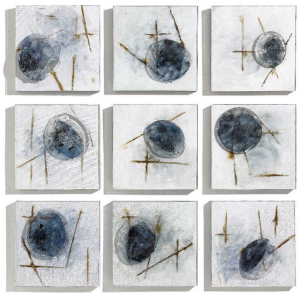
품을 판매한 적이 없었으나 연구소 후원을 위해 처음으로 작품을 내놨다. 그는 지난 24일 열린 개막식에서 "각종 미디어마다 유명 연예인들이 술 광고를 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간접살인과도 같다"며 "이 전시회가 무분별한 음주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부모를 위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소 설립에 함께했던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연구소를 세운 데 이어 작품을 기증하는 결단을 해준 김영주 회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동문은 "앞으로 연구소는 증후군의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의 통계를 파악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밖에도 증후군 환자를 위한 맞춤 교육 개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주 캠페인 진행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는 1923년 창립해 금주 금연운동, 여성교육, 축첩반대 운동 등을 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음주와 흡연, 약물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최진희(83회화)



최진희 동문의 개인전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 9월30일-10월10일 서울 사간동 금호 미술관에서 열린다. 유리판에 유리 가루를 섞어 만든 물감으로 그린 회화, 유리로 제작한 인체 모양의 조형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최동문은 모교와 미국 뉴저지 세라믹전문학교에서 공부한 뒤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12번째 개인전이다. 최동문은 점토에 그림을 그린 뒤 굵거나 유리판에 에나멜 물감으로 수묵화 같은 발묵 효과를 내는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시도한다. 삶과 생명에 대한 성찰을 작품의 주된 주제로 삼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리로 만든 근작들을 만날 수 있

다. 유리에 그린 그림 여러 장을 겹치고 나뭇가지 등 재료를 끼워 넣은 뒤 가마에서 열을 가해 제작한 회화작품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막지역을 여행할 때 새벽이슬을 머금은 풀잎이 발하는 강렬한 생명력을 보고 이를 표현할 소재를 찾다가 유리를 선택했다"며 "평면에 그린 회화라도 공간의 깊이와 빛의 투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유리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광야에 서다와 '생기를 불어넣다' 등 유리로 인체를 표현한 조형작품은 흙으로 사람모양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 이를 굵고 유리판을 부착해 다시 열을 가하는 등 4~5단계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 얻어낸 결과물이다. '바람에 눕다' 등 수묵화 느낌을 주는 작품은 유리 표면의 빛과 단순한 그림의 조화가 뿜어내는 원시적인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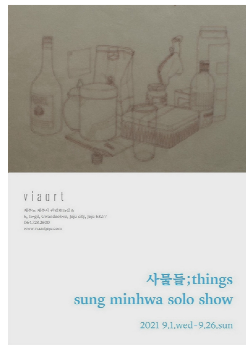
나의 사랑이 너의 온 하루를 반짝이도록 황혜선(88조소)

황혜선 동문의 스무번째 초대전이 대구 갤러리여울에서 오는 10월2일부터 11월27일까지 열린다. '나의 사랑이 너의 온 하루를 반짝이도록'을 주제로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황동문은 일상 속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과 연인, 가족,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며 산책하는 장면 등을 담았다. 그의 작품은 붓드로잉에서 시작해 얇은 알루미늄선이 있는 입체작품으로 완성된다. LED로 빛을 내는 풍선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밝게 비추어 온기를 더해준다. 황동문은



드로잉 작품을 설치하는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다. 모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 미술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19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알루미늄, 유리, 거울, 철판 등을 소재로 한 조각 및 비디오 작업, 성당과 지하철역 등에서 공공미술을 선보여왔다.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 경기도미술관, 국회의사당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사물들 성민화(89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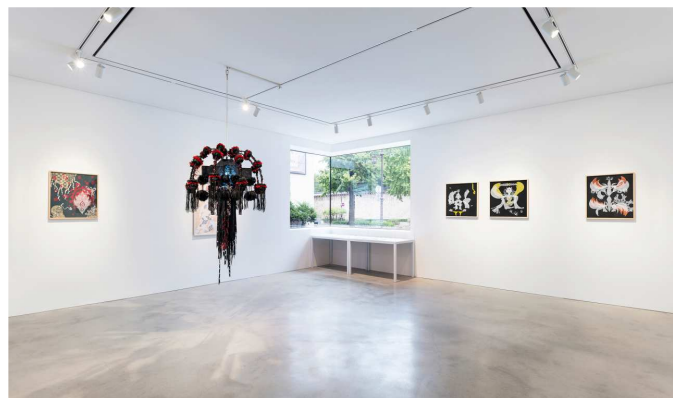


성민화 동문의 개인전 '사물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제주 비아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동문의 창작물 가운데 일상 속 사물 풍경을 표현한 드로잉 작업 15점으로 구성됐다. 성동문은 실내 개인 공간에서 보이는 사물을 대상으로 삼아 섬세하고 부드러운 선을 반복적으로 드로잉 한다. 그렇게 사물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한다. 성동문

은 유리병, 잉크통, 물감통, 이어폰 등 집안 어느 한 공간에 있을 친숙한 사물을 선정하고, 그 사물의 형태를 마치 미세한 움직임이 있는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듯 표현한다. 한편 성동문은 모교에서 조소를 전공한 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국립조형대학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서울과 독일 베를린을 오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



황홀망 恍惚網 양혜규(90조소)



세계적인 설치작가 양혜규 동문의 개인전 '황홀망'이 지난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를 콜라주해 만든 양동문의 신작 12

점을 소개되었다. 충남 태안반도에서는 굵을 할 때 까수기 혹은 설위설경(設位設經)이라고 불리는 종이 무구를 만들어 쓴다. 까수기는 한지를 여러 번 접고 오려내 만드는데, 굵을 하는 도중 망자의 영혼이나 신령을 부르는 등 이승

과 저승 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 짚풀공예와 방울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탐구해온 작가는 물질과 의식을 연결하는 까수기의 의미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민속극박물관과 샤머니즘박물관, 태안문화원 등에서 무속 전문가들을 만나 까수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뒤 이를 현대미술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한지와 모눈종이 등으로 만든 평면 작품들을 내놨다. 망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넋잔', 신령을 상징하는 '고비잔' 등을 다양하게 변주한 작품들과 굵을 하는 법사들이 쓰는 종이 고깔, 잡귀를 차단하거나 가두는 철망 등 추상적인 문양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한 작품들도 전시됐다. 한편 양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나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국립미술 학교 슈테델슐레를 졸업한 뒤 설치작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선정됐고, 2018년 아시아 여성 최초로 현대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작가에게 주는 세계적 권위의 미술상 독일 '볼프강한상(Wolfgang Hahn Prize)'을 받았다. 현재 슈테델슐레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춤을 추고 웃는 글자들 배남경(91서양)



독창적인 목판화기법으로 주목을 받아온 배남경 동문의 개인전 '춤을 추고 웃는 글자들'이 지난 9월 1-18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로 금산갤러리서에서 열렸다. 지난해 수상한 '강국진판화상'을 기념한 전시다. 배동문은 작가노트를 통해 "한글은 고도의 근본적인 진리를 내포하고도 그 쉽고 간단한 실용성에 담백한 진실성이 있으며 또한 박애와 민주적인 선함이 있다. 그리고 그 글자의 형태는 꾸밈없음으로써 오히려 드러나는 '멋 내지 않은 멋'의 한국 미의 전형적인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글은 놀랍게도 진선미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선 삶에 관한 생각들을 주변 일상의 사실적 이미지 속에 녹여내거나 한글의 진실하고 선한 아름다움, 진선미를 담은 목판화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삶, 사람,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한편 배동문은 모교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미술대전 문화관광부장관상(2006), 크라쿠프국제판화트리에날레 그단스크예술대학총장상(2012) 등을 수상했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영은미술관, 한라그룹 등에 소장되어있다.



유어산수 박소영(92동양)

박소영 동문의 15번째 개인전 '유어산수'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지난 8월3일-10월30일 열리고 있다. 야외를 거닐면서 받았던 영감을 바탕으로 자연과 우주에 대한 명상과 사색을 담아온 박동문은 자연과 벗하여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소요유를 바라는 바람을 작품에 투영하고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에서 미술교육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대미술관(MoA), 경

희대미술관, 인데코갤러리, 서울대치과대학 박물관, 실천신학대학원대, 국회의사당, 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Portland Community College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박동문은 한국미술교육학회 및 한국조형교육학회 이사,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화여성작가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회원이다.



여름 협주곡 이수지(92서양)



그림책 작가 이수지 동문의 개인전 '여름 협주곡'(Summer Concerto)이 8월4일-10월10일 서울 한남동 알부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동문의 신작 '여름이 온다' 출간과 함께 진행되는 전시회로, 비발디 협주곡 '사계' 중 '여름'을 그림 이야기로 재

구성한 '여름이 온다'에 사용된 원화뿐만 아니라 이동문의 데뷔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대표작 '파도야 놀자'도 볼 수 있다. 책이라는 매체에 매력을 느낀 이동문은 모교를 졸업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북아트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림책은 일상의 예술이라는 이동문의 작업은 아트북 또는 북아트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의 그림책의 특징으로 꼽히는 글 없는 그림책이나 책의 물성에 대한 적극적 실험은 책과 예술을 결합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책장을 넘기는 방향, 책 중간의 제본선, 판형, 종이의 질감과 사이즈 같은 책의 기본 골격조차 허물고 재구성하면서 주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장자, 기대어 노닐다 유한이(92동양), 박혜신(95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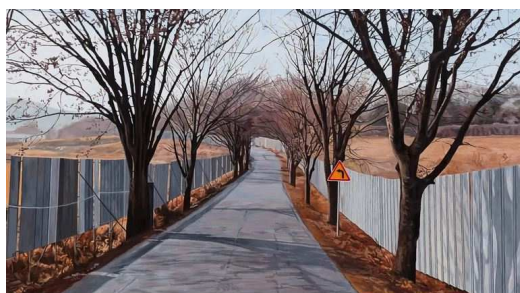
장자의 철학을 회화적,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활발하게 작품 활동 중인 유한이, 박혜신 동문이 예술주간을 맞아 9월1일-10월31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갤러리에서 제14회 중앙도서관 작은 전시회-'장자(莊子), 기대어 노닐다'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서울대 2021년 예술주간 Art Space@SNU와 중앙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시는 참여해 '미로', '상구원질도' 등 작품 10점을 전시한다. 유

동문은 정교하게 쌓아올린 레고블록 구조물을 이용한 평행사선도법의 무한한 공간을 통해, 문명과 제도의 구축과 해체를 관조적, 유희적으로 표현한다. 엄격하고 이성적인 기운의 기하학적 공간에 내재돼 있는 불안과 허무의 대비가 주는 작품의 메시지가 생성과 소멸, 삶과 죽음을 동일시하는 도가의 장자 사상과 닮아있다. 박동문은 장자의 유(遊) 사상을 매개로, 자연과 현대문명이 공존하는 내면의 풍경을 전통 회화의 문맥에 기하학적 조형을 결합해 표현하고 있다. 작가에게 예술은 삶의 본질을 찾는 여정이다. 작가의 작품 '상구원질도'의 푸른 하늘 아자수가 드리워진 무한공간을 여행하는 코끼리의 모습은 세속에 매인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한 이상향의 정신세계로 안내하는 듯하다.

집 같은 비장소 김지은(95서양)

김지은 동문의 개인전 '집 같은 비장소(Non-place Like Home)'이 9.9-10.23 갤러리시몬에서 열린다. 공사장의 어수선했던 풍경이나 건축과정에서 폐기된 부산물들이 거주공간과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 혹은 진부한 일상의 공간들 이면에서 건조하게 살아 숨쉬는 낯선 배경들을 그리는데, 이로써 회화라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장소들에 대한 시간성과 역사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김동문은 장소성과 역사성이 제거된

신도시와 평면공간으로 제시되는 아파트 공간을 마르크 오제의 '비장소'라는 개념과 접목시켜 비장소와 다름없게 된 집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는 화성시를 태양계 네번째 행성인 화성으로 재해석해 개발 중인 신도시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하고 집 같은 '비장소'에서 살아가기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작업들을 선보인다.



CiEL DESIGN

인간과 자연, 예술을 사랑하는 (유)시엘 디자인 입니다.

도시민들의 문화향유와 휴식공간 조성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기업 정신입니다.

시엘 디자인은 인간, 자연,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경관디자인 실현을 위해 디자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소 : 전북 김제시 두월로 279-12

전 화 : 063-547-3200

1공장 : 김제시 봉황공단2길 78-37

H . P : 010-4653-6863

2공장 :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로 119-21

E-Mail: ciel3200@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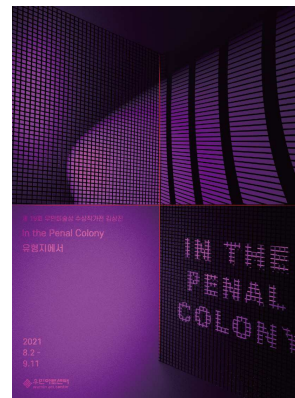
(유)시엘 대표 김형기 청동, 알루미늄, 스텐 주물, 원형 점토 작업, 석조각, 제작 시공 업체

In the Penal Colony-유형지에서 김상진(00조소)



제19회 우민미술상을 수상한 김상진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9월11일까지 우민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소리와 오브제를 결합시켜 인식과 지각의 상식을 전복시키는 품들을 선보여왔다. 개념과 현실의 간극을 넘나들며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식 체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그의 작업은 오브제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작품을 통해 인문사회학적 성찰을 시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문은 이번 전시 작품들을 통해 언어적 관념과 기호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은유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졸업 후 영국

골드스미스 순수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갤러리민, 금호미술관 등에서 5회의 개인전과 수차례 그룹전에서 꾸준히 작품을 선보여왔으며 성균관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4월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1'의 후원작가에 선정됐고 지난해 10월엔 19회 우민미술상을 받았다. 김동문이 수상한 우민미술상은 우민아트센터가 2002년 제정된 '올해의 좋은 작가 미술상'을 2016년에 이어받아 2017년 '우민미술상'으로 명칭을 변경한 상이다. 매년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한 작가를 선정해 수상작가의 전시를 이듬해 개최함으로써 창작 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Unstable Dimension 이은실(01동양)



이은실 동문의 개인전 'Unstable Dimension'이 지난 8월26일-9월25일까지 갤러리P21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 사회적 금기와 갈등하고 억압받는 과정에서 분열하는 자아의 에너지를 전통 한국화의 방식으로 그려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회와 갈등하는 개인의 내적 욕망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대인의 정신 질환의 양상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신작 7점을 공개했다. 개인이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내재된 욕망은 사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대인의 다양한 정신질환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사회가 규정하는 기준에 맞춰 억눌리는 자아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왜곡되고 분열, 중첩된다. 이동

문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개인의 공간에서 두드러지는 분열된 자아가 외부와는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가를 서술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PRESS THE BUTTON!(유아트스페이스, 2019), Perfectly Matched(두산갤러리뉴욕, 2016), 애매한 젊음(사루비아다방, 2010), Neutral Space(대안공간풀, 2009) 등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MIDSUMMER(P21, 2021), 호랑이는 살아있다(코리아나미술관, 2020), 아트스펙트럼 2014(리움미술관, 2014)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9년 제19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0 송은아트스튜디오, 2018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2016 두산아트센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Anthropause 강이연(02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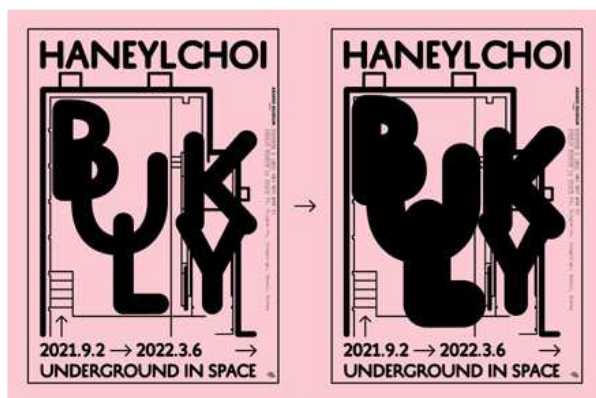


강이연 동문이 PKM갤러리에서 지난 8월21일까지 개인전 'Anthropause'를 열었다. 미디어아트 작가인 강동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봉쇄) 상태에서 인류의 삶이 멈춰 있는데도 주가와 비트코인 시세가 치솟는 게 의아했다. 강동문은 "절멸 위기에도 인간의 욕망이 숫자로 무한 증식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모든 존재가 유한하다는 진실을 망각해 온 인류의 무분별한 행위로 팬데믹이 왔는데도 욕망은 무한대로 솟구쳤다"고 말했다. 강동문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게 슬프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지금 우리는 무한에 더 우월한 가치를 두고 있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는 무한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다. 과거 철학자들은 무한을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흐지부지한 상태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시대 '인류 일시 정지

'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생산적 멈춤'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작품에 담았다. "유한함을 존중하면 지금의 일류 일시 정지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한다. 한편 강동문은 모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에서 디자인·미디어아트 석사를, 영국왕립예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미술관,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베니스건축비엔날레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으며 방탄소년단(BTS)의 글로벌 현대미술 프로젝트 '커넥트(CONNECT)', BTS'에 유일한 한국 작가로 참여했다. 최근에는 서울 잠실 롯데타워에서 김환기 '우주' 미디어 프로젝트를,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드로잉 소셜 버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현재 영국 왕립예술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Bulky 최하늘(10조소)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미지나 이슈를 다루는 퀴어아트를 탐구해온 최하늘 동문의 개인전 '벌키(Bulky)'가 지난 9월2일부터 내년 3월22일까지 언더그라운드 인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최동문은 비물질이 일상으로 자리하는 시대적 흐름 속

에서 조각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한국 예술의 토양에 퀴어아트(Queer Art)가 동시대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해왔다. 전시 제목인 '벌키(Bulky)'는 부피가 크다는 뜻으로, 근육량을 늘려 덩치를 키우는 벌크업(Bulk-up)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최동문은 비물질 시대에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조각과

사회적 소수자인 퀴어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주류라는 유사성에 기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동등한 선상에 놓고 결합하는 실험을 전개한다. 조각의 창작 방식에서 퀴어한 지점을 찾거나 역사 또는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퀴어 요소를 발견하고 조각과 연결하는 등, 전시작들은 전작들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표현에 있어 좀더 과감하고 솔직해졌다는 평가다.

아라리오뮤지엄 관계자는 "최하늘의 예술적 시도는 조각과 퀴어 모든 측면에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아가 한국 특유의 퀴어 아트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하늘은 모교 조소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전문사를 졸업하고 합정지구(2017), 산수문화(2018)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국립현대미술관(2019),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20), 아르코미술관(2021) 등에서 열린 그룹전 등에 참여했다.

